

아레스를 닮은 메넬라오스*

— 『일리아스』의 내적 포물라 연구

이 준 석**

[초 록]

『일리아스』에서 메넬라오스는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 빈번하게 아레스의 이름에서 파생된 수식어와 연결된다. 패리의 구송시 가설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이 현상을 전통적인 구송시의 시 짓기 재료인 ‘stock epithets’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이러한 명사 + 수식어 조합은 호메로스의 발명이 아니며, 호메로스 이전의 전통의 축적에서 비롯된 포물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설명이 될 수는 없다. 반대로, 메넬라오스와 아레스의 연결은 호메로스 이전의 전통이 아닌, 『일리아스』 내부의 문맥에서만 의미를 갖는 내적 포물라로 간주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 전투를 향한 의지와 그 결과의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일리아스』의 메넬라오스와 아레스는 서로를 절묘하게 닮아 있으며, 각자 개인적인 가정사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만용을 부리나 형, 또는 누이에게 심하게 제지당하고 굴욕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주제어: 일리아스, 메넬라오스, 아레스, 수식어, 포물라
Iliad, Menelaus, Ares, Epithets, Formula

서도 놀라운 유사성이 발견된다. 이 둘이 좌절과 모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메넬라오스에게 연결되는 아레스 수식어는 단순한 장식 내지 전통의 산물이 아닌, 문맥에 잘 맞는 의미 있는 수식어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본고는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인물 메넬라오스와, 신 아레스의 관계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필자는 메넬라오스는 아레스의 이름에서 파생된 수식어와 독보적으로 자주 연결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실마리를 찾는다. 두드러지지 않는 전사 메넬라오스와 전쟁의 신 아레스의 연결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조합이라는 점에서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본문에서는 구송시 가설에 기댄 기존의 해석에 맞서, 이 둘의 연결이 의미와 무관한 것이 아닌, 『일리아스』에서 제시되고 있는 메넬라오스와 아레스의 설정과 잘 어울린다는 점을 텍스트 내부의 논거와 함께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리아스』에서 묘사되는 메넬라오스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2. 『일리아스』의 메넬라오스

『일리아스』의 메넬라오스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 때때로 승리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만(5.49-58, 5.576-579, 13.593-649, 15.540-543, 15.572-578, 16.311-312, 17.43-69, 17.579-581)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서 돋보이는 전사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2.1. 파리스와의 맞대결: 3권

파리스와의 맞대결에서, 그는 상대방에게 연속으로 세 번이나 타격을 입히고, 아가멤논에 의해 승자로 인정받는다(3.457). 그러나 패배자 파리스가 헬레네의 실질적인 남편으로서 여전히 침실에서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반면(3.438-348), 그가 얻은 것은 상대방의 빈 투구뿐이다(3.369-378). 즉, 그는 명목상의 승리자일 뿐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것이다. Krieter-Spiro가 올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파리스와 메넬라오스 사이의 이 명확한 대조는 승리자의 위엄과는 거리가 먼, 희극적인 효과를 가져 올 뿐이다.¹⁾

이 작품에서 어떤 전사가 사자 직유와 연결될 때, 대체로 그는 전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며 상대를 압도하는 용맹을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²⁾ 그러나 이러한 사자 직유도 메넬라오스와 연결될 때에 한해서는 어딘가 어긋나있다. 그가 파리스를 발견했을 때, 그는 다른 동물의 시체를 발견하고 게걸스럽게 먹는 사자로 비유된다. 이 직유의 초점은 굶주린 사자에 비견될만한 그의 복수심일 뿐, 그의 힘과 용기는 아니다.³⁾

-
- 1) Krieter-Spiro, Martha (2009), *Homers Ilias: Gesamtkommentar: Bd. 3. Dritter Gesang (I) Fasz. 2. Kommentar*. Hrsg. von A.Bierl und J.Latacz. Berlin; New York: De Gruyter, 3.448-9n.
 - 2) Alden, Maureen J. (2005), "Lions in Paradise: Lion Similes in the Iliad and the Lion Cubs of IL. 18.318-22", *Classical Quaterly* 55,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335. 호메로스의 사자 직유 사용 전반에 대해서는 Krischer, Tilman (1971), *Formale Konventionen der homerischen Epik (Zetemata 56)*, München: Verlag C. H. Beck, pp. 36-75; Friedrich, Rainer (1981), "On the Compositional Use of Similes in the Odyssey",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02,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120-137을 보라.
 - 3) Stoevesandt, Magdalene (2005), *Feinde - Gegner - Opfer: Zur Darstellung der Troianer in den Kampfszenen der Ilias (Schweizerische Beiträge zur Altertumswissenschaft Band 30)*, Basel: Schwabe Verlag, p. 179.

아레스에게 사랑받는 메넬라오스가 마침 이를 알아보았으니,
이는 마치 굶주린 사자가 뿔사슴이나 산양 같은
큰 짐승의 사체를 보고 반가워 달려들어,
건장한 청년들과 재빠른 개들이 추격해오는 마당에도
계걸스레 뜯어먹는 모습과 같았다. (3.22-27)

2.2. 메넬라오스의 수훈기: 17권

이후, 메넬라오스의 수훈기(*Μενελάου ἀριστεία*)라는 부제가 전해 내려오는 17권에서 메넬라오스에게 사자 직유가 두 번 더 붙는데, 두 번 모두 메넬라오스는 늘 고유의 용기와 위엄을 잃어버린 사자에 비유된다.⁴⁾ 먼저, 그가 헥토르를 두려워하며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버리고 도망칠 때, 그는 개떼와 사람들의 고향 소리에 쫓겨 달아나는 사자의 모습으로 그려진다(17.110-113). 파트로클로스 시신 방어전에서 물러난 메넬라오스는 아이아스의 당부 받고 안틸로코스를 아킬레우스에게 보내어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때에도 그는 허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헛불과 투창에 굴복하여 아무 소득 없이 물러나는 사자에 비유된다(17.656-666).

4) 이 부제를 근거로 메넬라오스를 영웅적으로 검토하려는 학자들도 꾸준히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Fenik, Bernard (1968), *Typical Battle Scenes in the Iliad: Studies in the narrative techniques of Homeric battle description (Hermes Einzelschrift 21)*, Wiesbaden: Franz Steiner Verlag, pp. 159-161; Moulton, Carroll (1977), *Similes in the Homeric Poems (Hypomnemata Heft 49)*,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pp. 73-74; Edwards, Mark W. (1991), *The Iliad: a Commentary. Vol. 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62; Stelow, Anna (2009), "The 'Aristeia' of Menelaos" *Classical Journal* 104, Classical Association of the Middle West and South, pp. 193-205이 있다. 그러나 무훈(aristeia)을 한 전사에 의한 일정 기간 동안의 전장지배라고 해석할 때, 17권에서 보여주는 메넬라오스의 행적은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다만 빈번히 등장할 뿐이다.

2.3. 비영웅적인 인물

『일리아스』의 메넬라오스는 대단한 전사도, 강력한 인물도 아니다. 영웅적인 면모는 부족하나, 오히려 우리 일반인들과 닮은 인간적인 면모로 우리에게 더 어필하는 인물에 가깝다. 자신의 가정문제로 발발한 이 전쟁에서, 그는 다른 동료 전사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는다. 오뒷세우스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11.460), 파트로클로스의 시신 구출에서도(17.1-8), 그는 그들을 구하고자 욕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서조차 그는 영웅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방어 영웅 아이아스의 보호를 받으며(11.464-88, 17.102-39) 자신의 안전을 지킨다. 동료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의 생명보존 욕구가 충돌할 때, 그는 후자를 택하고 물러난다.⁵⁾

아니다, 내 기백은 어쩌서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신이 명예를 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신의 뜻을 거슬러가며
그 사람과

싸우려고 나선다면, 그에게는 엄청난 참변이, 그것도 빠르게 굴러
오는 법.

그렇다면 내가 헥토르에게 길을 내주는 걸 설령 누가 본다 해도,
다나오스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내게 분을 품지는 못할 테지. 저자
는 신이 내린 힘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17.97-101)

그의 비영웅적인 독백은 11권 401행에서 디오메데스가 부상당한 후 혼자 남아 트로이아인들에게 포위된 오뒷세우스의 고민과 명백히 대조

5) Renehan, Robert (1987), "The Heldenot in Homer: One Heroic Ideal" *Classical Philology* 8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11 n.35. 반면, Bark는 생존의 본능이야말로 영웅적 이상의 출발점이라고 논하지만, 이는 호메로스의 영웅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다. Barck, Christopher (1971), "Menelaos bei Homer", *Wiener Studien* 84,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 12를 보라.

된다.

아니다, 내 기백은 어째서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볼품없는 자들이나 전쟁에서 꿈무늬를 뺏다는 것쯤은 나도 안다.
전투에서 제일가는 사람이라면, 얻어맞든 누군가를 맞히든 상관
없이

힘껏 버터내는 게 급선무라는 것쯤이야 나도 알고 있다!

(11.407-410)

양자 모두 남아서 버틸 경우 초래될 죽음의 위험과, 후퇴했을 때의 수치 사이에서 고민한다. 그러나 오뒷세우스는 버텨서 싸우기로 결심하는 반면, 메넬라오스는 후퇴한다. 호메로스에서 영웅의 모토는 단순명쾌하다. 즉, *aièn áριστεύειν καὶ ὑπείροχον ἔμμεναι ἄλλων* 언제나 제일인자가 되고, 남들보다 뛰어난 자가 되는 것이다(6.208, 11.784).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 비타협적인 영웅가치는 메넬라오스의 심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일리아스』의 메넬라오스는, 메넬라오스 본인에게는 몹시 안 된 이야기지만, 그에 대한 아폴론의 평가를 인용하는 편이 가장 정확하다 “*μαλθακὸς αἰχμητῆς* 물러터진 창잡이”(17.588).

3. 구송시 가설로 추측하기

그런데, 우리는 『일리아스』에서 메넬라오스의 독특한 수식어를 만나게 된다. 메넬라오스는 아레스의 이름에서 파생된 수식어들을 눈에 띄게 자주 받는 인물이다. *Μενέλαος ἀρήϊος*, 또는 *ἀρηϊφίλος Μενέλαος*라는 조합은 29번이나 등장하는 반면,⁶⁾ 다른 어떤 누구도 이러한 수식어와 두

6) 아레스를 닮은 *ἀρήϊος*: 3.339, 4.98, 115, 4.195, 205, 11.487, 15.540, 16.311, 17.79.

번 이상 연결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전쟁의 신 아레스가 유독 메넬라오스와 연결되어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를 처음 만난 것은 본인이 아니다. Rousseau는 이 통계를 처음으로 문제 삼았고,⁷⁾ Willcock은 이 통계에 근거하여 『일리아스』 이전의 메넬라오스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했다. 즉, 그는 상냥하고 점잖은 성격과는 거리가 먼, 말 그대로 아레스를 닮아 있는 호전적인 복수자였을 것이라는 추측인데, 이 추측의 근거는 Parry의 구송 호메로스 가설이다. 다시 말해, 『일리아스』의 등장인물들에게 부여되는 수식어들은 호메로스의 창작이 아니며, 아주 오랜 전통 속에서 문맹 가수들의 구송시 전통에서 축적되어 온 것으로 호메로스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⁸⁾ 그러나, Willcock은 호메로스가 시의 내용까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낸 것은 아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인물들의 성격을 새로 빚어내는 과정에서 인물의 새로운 성격과 수식어의 전통적인 특성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아레스의 이름에서 파생된 수식어를 유난히 자주 받고 있는 『일리아스』의 메넬라오스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지적한다.⁹⁾

그렇다면, 호메로스 이전의 전통에서 메넬라오스는 Willcock의 추정과 같은 인물이었을까? 흥미로운 가설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한 설명은

아레스에게 사랑받는/아레스 그 자신의 ἀρτίφιλος: 3.21, 52, 69, 90, 136, 206, 232, 253, 307, 430, 432, 452, 457, 4.13, 150, 5.561, 11.463, 17.1, 11, 138.

7) Rousseau, Philippe (1990), “Le deuxième Atride: le type épique de Ménélas dans l’Iliade” in *Mélanges P. Lévêque* 5. Ed. par M.Marie-Madeleine et G.Évelyne. Paris: Belles Lettres, pp. 325-326.

8)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른바 stock epithets에 대한 논의로는 Parry, Milman (1971), *The Making of Homeric Verse: The Collected Papers of Milman Parry*; Ed. by A. Par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46-172를 보라.

9) Willcock, M. M. (2002), “Menelaos in the Iliad” in *EPEA PTEROENTA: Beiträge zur Homerforschung. Festschrift für Wolfgang Kullmann zum 75. Geburtstag*. Hrsg. von M. Reichel und A. Rengakos.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pp. 224-225.

아니다. 이유는 다음의 둘이다.

3.1. 반론 1: 아티카 비극의 증거

먼저, 서사시권 등 非호메로스적 전통을 자유롭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는 고전기의 아티카 비극들에서도 메넬라오스의 용맹이나 호전성이 부각되는 작품은 단 하나도 없다. 현전하는 31개의 아티카 비극 중에서 메넬라오스는 여섯 작품에 등장하는데, 작가, 작품에 관계없이 그는 『일리아스』에서 남아있던 그의 인간적인 면모마저 거세된 졸렬한 인간에 가까운 모습으로 일관되게 그려지는 경향이 있다.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에서는 완고하고 속 좁은 인물로, 에우리피데스의 『안드로마케』, 『오레스테스』, 『트로이아의 여인들』,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헬레네』에서는 겁쟁이, 기회주의자 등으로 그려질 뿐이다. Willcock이 추정했던 호메로스 이전의, 전쟁의 신 아레스를 닮은 전사 메넬라오스의 모습은 적어도 현전하는 자료들 중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3.2. 반론 2: 메넬라오스와 아레스의 유사성

다음, 이 수식어들은 『일리아스』에서 그려지는 아레스의 모습에 더 없이 잘 어울린다는 것이 본인의 해석이다. 달리 질문해보자. 호메로스의 아레스는 얼마나 아레스다운가? 그는 전쟁의 신, 혹은 전쟁 그 자체로서 전장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개입하지만 그 결과는 보잘 것 없다. 5권에서 디오메데스의 창에 손을 다친 아프로디테는 아레스에게 사정하고(5.357-362), 아폴론의 부탁이 이어지자(5.454-459) 그는 헥토르와 함께 트로이아인들을 이끌고 희랍군을 향해 진격한다. 이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디오메데스의 심정은 마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의 급류 앞에 길이 끊겨 뒤로 물러서야만 하는 사람처럼 그려지고, 그는 급기야 희랍

군에게 퇴각을 명령한다(5.590-606). 결국 디오메데스를 발견한 아레스는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일념으로 창을 던지지만, 아테네의 개입으로 그의 공격은 실패하고, 오히려 디오메데스에게 일격을 당한 채 거대한 비명을 지르며 올림포스로 패주한다(5.846-870). 21권에서 벌어지는 신들의 전투에서, 아레스는 이 수모를 잊지 않고 아테네에게 싸움을 청한다. 그는 창을 들어 아테네의 아이기스를 찍어보지만 타격을 주지 못한 반면, 아테네는 바위로 아레스의 목을 가격하여 그의 사지를 풀어놓으며 완승을 거둔다(21.392-417). 전투에 대한 열의와, 그 싸움의 결과가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리아스』의 메넬라오스와 아레스는 서로를 절묘하게 닮아있는 셈이다.

닭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레스는 자신의 아들 아스칼라포스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헤라로부터 듣고, 복수심에 불타올라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제우스의 금령을 어기는 것까지 감수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누이인 아테네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심한 모욕과 함께 그를 즉시 제지하고, 아레스도 저항 없이 이에 굴복한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아레스는 그만 두 손바닥으로
억센 허벅지를 내리치더니, 비통해하며 말하였다.

“이젠 내게 분개하지들 마시오, 올림포스의 집에 살고 있는 당신
들 말이오!

나는 내 아들의 핏값을 받아내러 아카이아인들의 배들로 갈 테니까.
설사 제우스가 나를 벼락으로 내리쳐 핏덩어리와 흙먼지 속에서
시체들과 함께 눕는 게 내 운명일지라도!”

그는 이렇게 말하고 데이모스와 포보스에게 명하여
말들에게 멩예를 메우게 하였고, 자신은 찬란한 빛을 뿜는 무장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이때 만일 아테네가 모든 신들을 위해 노심초사하다가

앉은 자리를 박차고 복도를 가로질러 뛰쳐나가
그의 머리에서 투구를, 두 어깨에서는 방패를 낚아챈 다음,
그의 손에서 단단한 청동 창을 빼앗아 세워놓지만 앉았어도,
제우스에게서는 또 다른 원한과 진노가 더 크게,
더 뼈아프게 솟아 죽음을 모르는 신들에게 마련될 참이었다.
그녀는 돌진하는 아레스를 이런 말로 닦아세웠다.
“미쳐 날뛰는 놈, 사리 분별이라고는 밑바닥까지 박살 난 정신 나
간 놈아!
네 놈에게 달린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냐? 네게는 판단력도,
경외심도 망해버렸구나! 분명 방금 올림포스의 제우스께 다녀오신
뽀얀 팔의 헤라께서 하신 말씀을 네 놈은 알아들을 수가 없더냐?
아니면 너도 별의별 더러운 꼴을 고스란히 다 겪고
심란한 낮짜름을 하고선 억지로 올림포스로 되돌아온 다음,
다른 모든 신들에게 거대한 재앙을 심어놓을 작정이냐?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은 즉시 기세등등한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
아인들을 떠나
올림포스로 들이닥쳐 우리를 향해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하나씩 차례대로 움켜질 테니까,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상
관없이!
그러니 내 다시 한 번 네게 충고하마, 네 잘난 아들로 인한 분노
는 이제 그만
놓아버리라고 말이다. 이미 그 아이보다 힘이며 두 주먹이며 더
강했던 사람도
맞아서 쓰러졌고, 또 앞으로도 쓰러질 게 아니냐. 인간들의 종족
이며
그 자식들을 모조리 다 구해내는 건 성가신 일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돌진하는 아레스를 자리에 앉혔다.

(15.113-42).

이제 헥토르가 희랍군 전사들에게 맞대결을 제안하는 장면으로 가보자. 7권 초입에서, 트로이아의 예언자 헬레노스는 아폴론과 아테네의 대화를 듣고 헥토르에게 아직 죽음의 운명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헥토르에게 전하자, 헥토르는 희랍군에게 당당한 자세로 맞대결을 청한다. 즉, 누구라도 좋으니 자신과 일대일로 맞붙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선뜻 이 대결에 응하는 희랍군 전사가 없었고, 이에 메넬라오스가 이 도전을 받아들이며 일장 연설을 한다. 메넬라오스는 자신의 아내가 전쟁의 원인인 까닭에, 헥토르와 맞붙어 이 전쟁을 끝내려는 의욕이 있다. 그러나 그가 무장을 갖추는 사이 다른 지휘관들이 일어서 그를 만류했고, 특히 그의 형 아가멤논은 그의 만용을 꾸짖으며 단호히 제지한다. 이에 메넬라오스도 저항하지 않고 그의 명령에 따른다.

한참이 흐르고 나서 메넬라오스가 일어나 그들 사이에서 입을 열었다.

그는 욕을 해대며 그들을 꾸짖었고, 속으로 몹시 탄식하였다.

“제기랄, 입만 살아 있는 자들이여, 그대들이 무슨 아카이아의 사내들인가,

아카이아의 계집들이지. 지금 다나오스인들 중에서 아무도 헥토르와 맞서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 분명히 해두는데, 끔찍하고도 끔찍한 오욕으로 남을 것이오!

그대들이 심장도 없이, 명성도 없이 이따위로 있을 거면 차라리 다들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물이 되고 흙이 되지 그러시오.

저자에게 맞서서는 바로 이 몸이 무장을 갖추는 것이오. 승리의 빛 줄은

죽음을 모르는 신들이 계신 곳, 저 위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는 아름다운 무장을 입기 시작했다.

그러나, 만일 아카이아인들의 왕들이 벌떡 일어나 그대를

붙들지만 앉았어도, 메넬라오스여! 헥토르의 손아귀에서 그대 삶의 종말이

모습을 드러냈으리라. 그가 훨씬 더 뛰어나니까.

아트레우스의 아들, 두루 다스리는 아가멤논은 직접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렇게 말하였다.

“제우스께서 길러주신 메넬라오스야, 너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이런

얼빠진 짓을 할 필요까지는 없잖느냐! 네가 아무리 심란해도 참아야지,

승부를 보고 싶은 의욕에 너보다 더 우월한 자,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와

싸우려 들진 말아라. 다른 사람들도 그자라면 진저리를 친다.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한 그 아킬레우스조차도, 오죽했으면

남자들을 영예롭게 하는 전투에서 그자와 마주치려 하면 몸서리를 쳤겠느냐.

아서라, 너는 당장 전우들이 모인 자리로 들어가 앉아라.

그자에게 맞서 가장 앞서 나설 다른 사람일랑은 아카이아인들이 세우도록 놔두고.

그자가 제아무리 두려움을 모르고, 싸움에 만족을 모른다고 해도,

내 말해두거니와, 파괴적인 전투로부터, 살벌한 싸움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자도 안도하며 무릎 굽혀 설 것이다.”

영웅은 이렇게 말하며 잘 계산된 말로 설득하여 동생의 판단을 돌려놓았다. 그는 형의 말을 따랐고, 부하들도 기뻐하며

그의 어깨에서 무장을 벗겨주었다.

(7.94-122).

아레스와 메넬라오스, 양자 모두 자신의 가정사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나, 그 무모함으로 인해 동기에게 심한 제지를 받고 수모를 감수해야 한다. 『일리아스』에서, 아레스의 좌절과 굴욕을 메넬라오스 역시 공유한

다는 점에서 메넬라오스는 아레스를 닮은 것이다.¹⁰⁾ 반면, 『일리아스』와 달리, 메넬라오스가 더 이상 아레스의 좌절과 연결되지 않는 『오뒷세이아』에서는, 단 한 번 메넬라오스가 아레스와 연결될 뿐이다(Od. 15.169). 따라서 메넬라오스에게 연결되는 ἀρήϊος, ἀρηϊφίλος는 장식을 위한 수식어(epitheton ornans)가 아닌 의미 있는 수식어(epitheton significans)일 것이다.

4. 나가며

물론 구송시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논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arry의 가설에 기대어, formula를 오랜 구전 전통으로 형성된 common stock의 일부로 간주하고(마치 레고블록과도 같은!) 그 범용성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이런 반복구들이 차라리 『일리아스』 내부에서 특별히 적용되고 있는, 시인의 의도된 선택이라고 믿고 싶다. 문맥과 잘 맞는, 그래서 범용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Μενέλαος ἀρήϊος와 ἀρηϊφίλος Μενέλαος 같은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리아스』의 모든 ‘명사 + 수식어’의 조합을 전수 조사하여 각각이 문맥과 맺는 의미론적인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축적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선보이게 될 때, 우리는 호메로스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0) 참고로, Kelly는 아레스의 직유를 관찰하며, 『일리아스』에서 아레스 직유는 일관되게 무능함, 또는 이류(二流)와 연결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일리 있는 해석이나, 그는 아레스 직유와 연결되는 이도메네우스, 헥토르, 그리고 심지어 아킬레우스까지 이류로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한편, Kelly의 논의는 직유에 한정되어 메넬라오스가 제외되고 있다. Kelly, Adrian (2007), *A Referential Commentary and Lexicon to Homer, Iliad VI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28-232를 보라.

참고문헌

【논 저】

- Alden, Maureen J. (2005), "Lions in Paradise: Lion Similes in the Iliad and the Lion Cubs of IL. 18.318-22", *Classical Quaterly* 5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ck, Christopher (1971), "Menelaos bei Homer", *Wiener Studien* 84,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Edwards, Mark W. (1991), *The Iliad: a Commentary*. Vol. 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nik, Bernard (1968), *Typical Battle Scenes in the Iliad: Studies in the narrative techniques of Homeric battle description (Hermes Einzelschrift 21)*, Wiesbaden: Franz Steiner Verlag.
- Friedrich, Rainer (1981), "On the Compositional Use of Similes in the Odyssey",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02,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elly, Adrian (2007), *A Referential Commentary and Lexicon to Homer, Iliad VI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ieter-Spiro, Martha (2009), *Homers Ilias: Gesamtkommentar: Bd. 3. Dritter Gesang (I) Fasz. 2. Kommentar*. Hrsg. von A.Bierl und J.Latacz. Berlin; New York: De Gruyter.
- Krischer, Tilman (1971), *Formale Konventionen der homerischen Epik (Zetemata 56)*, München: Verlag C. H. Beck.
- Moulton, Carroll (1977), *Similes in the Homeric Poems (Hypomnemata Heft 49)*,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 Parry, Milman (1971), *The Making of Homeric Verse: The Collected Papers of Milman Parry*; Ed. by A. Par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enehan, Robert (1987), "The Heldentod in Homer: One Heroic Ideal" *Classical Philology* 8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usseau, Philippe (1990), "Le deuxième Atride: le type épique de Ménélas dans l'Illiade" in *Mélanges P. Lévêque* 5. Ed. par M.Marie-Madeleine et

G.Évelyne. Paris: Belles Lettres.

Stelow, Anna (2009), “The ‘Aristeia’ of Menelaos” *Classical Journal* 104,
Classical Association of the Middle West and South.

Stoevesandt, Magdalene (2005), *Feinde - Gegner - Opfer: Zur Darstellung der
Troianer in den Kampfszenen der Ilias (Schweizerische Beiträge zur
Altertumswissenschaft Band 30)*, Basel: Schwabe Verlag

Willcock, M. M. (2002), “Menelaos in the Iliad” in *EPEA PTEROENTA:
Beiträge zur Homerforschung. Festschrift für Wolfgang Kullmann zum
75. Geburtstag*. Hrsg. von M. Reichel und A. Rengakos.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원고 접수일: 2020년 1월 17일

심사 완료일: 2020년 2월 10일

계재 확정일: 2020년 2월 12일

ABSTRACT

Ares-Like Menelaus:

A Study of the Internal Formulae in the *Iliad*

Lee, Joon Seok*

In the *Iliad*, Menelaus is notably frequently connected with the epithets derived from Ares. Indeed, they ornament his name twenty-nine times whereas no one else is the subject of such an epithet more than twice in the *Iliad*. The Parryists have tried to explain this unexpected combination based on the traditional ‘stock epithets’ which go with a name in the formulaic phrases which are the building blocks of oral poetry. But it is not the only possible explanation. In that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his will to fight and the outcome of battle, Menelaus bears an uncanny resemblance to Ares in the *Iliad*. Both Ares and Menelaus are determined to take their family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but are harshly rebuked for their recklessness by their own siblings. At last they have no choice but to put up with humiliation. Menelaus is Ares-like in that he shares frustration and humiliation with Ares in the *Iliad*. Thus, ἀρήϊος/ἀρηϊφίλος is epitheton *significans*, not *ornans*.

*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e and Liberal Art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